

한국어 2인칭 대명사 실제 사용 제한 연구

- 사회적 문법에서 문화적 문법까지 -

扈貞煥

1. 서론

세계의 어떤 언어보다도 한국어에서 지켜야 할 언어예절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언어예절이란 순수문법과는 달리 청자와 화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 또 말이 행해지는 때와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언어학적 규칙(sociolinguistic rule)이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이나 발음이 틀렸을 때보다는 언어예절을 대표하는 경어법에 어긋나는 경우 반감으로 받아들여지며 불손하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날 언제 봤다고 ‘너’라고 부르며 반말이야?” “‘당신’? 나이도 어린데 말을 함부로 해” 등등.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의 경어 체계의 복잡함을 매번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대화를 시작할 때 화자가 상대방과 자신의 위계를 정하기 전에는 말을 걸기가 힘들 정도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나이, 학벌, 고향, 심지어는 성씨의 족보까지도 꼬치꼬치 캐어 물어보는 죄수가 심문을 받는 듯한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어에 대한 직감이 없는 외국인에게 한국어가 달리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한국어의 경어 체계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 문화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면서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어 체계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그 복잡미묘함이 도드라지는 형태론 수준, 즉 구체적으로 용언의 종결형 사용이고, 또 하나는 상대를 부를 때 쓰이는 겹겹의 위계 질서로 둘러싼 친족 명칭을 포함하는 각종 호칭 사용일 것이다.¹ 근래 들어

¹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address form)는 가리킬 때의 지칭어(reference form)와 엄연히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대 한국어의 일부 친족형 명칭에서 그 구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동생은 미혼이면 전통적 지칭어는 ‘삼촌’이고, 형이 결혼하면 그의 부인은 ‘형수’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호칭어는 ‘아저씨’나 ‘아주머니’이지만, 삼촌이나 형수를 ‘아저씨’ ‘아주머니’로 불렀다간 어색한 상황이 되기 쉽다. ‘아저씨’ ‘아주머니’는 친족형 명칭 기능을 잃고 사회통칭형으로서의 새로운 의미 기능을 얻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인칭 대명사 자리에 대행으로 들어가는 호칭어 형태의 3인칭 명사에 국한한다.

한국어 경어 체계는 많이 간소화되고 있지만 아직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용법이 까다로운 2 인칭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존대를 해야 할 상대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2 인칭 대명사가 없다는 언어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학교문법식의 설명만을 믿고 따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쉬운 것이 2 인칭 대명사 사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초점을 그 실제 사용 제한에 대한 설명에 두었다.

한국어의 경어 체계 중 한국인 스스로도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2 인칭 대명사 사용이다. 영어의 ‘you’의 경우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고, 불어의 ‘vous/tu’와 중국어의 ‘您/你’의 구분은 그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대인가 혹은 격식을 크게 차릴 필요가 없는 면식이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해 줄 뿐이다. 한국어에서 ‘당신’ ‘너’ ‘그대’ ‘자네’ ‘자기’ ‘귀하’ ‘님’ 어느 것 하나도 부담없이 2 인칭 대명사 자리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다. 존대해야 할 대상 누구에게나 부담없이 쓸 수 있는 한국어 2 인칭 대명사가 없다는 언어 현실은 문제성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수직사회에서의 한국적 정서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2 인칭 대명사가 왜 실제적 사례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소박한 의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언어 현실을 한 사회 속에 내재된 문화의 표현으로 보고, 한국어 속의 2 인칭 대명사의 특징과 그 대행 표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3 인칭 명사 호칭에 결정적 요인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언어적 규범과 문화적 사고 범주를 사회적 문법과 문화적 문법 개념으로 정의하여 하나의 설명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문법 접근

2.1 공동체 속의 ‘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범주

경어법 속에서 문법 범주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하는 관점이 있다.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인 기대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관계를 인식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회문법에 속한 연구가 그것이다. 즉 존대 혹은 비존대의 양분 체계로서의 문법 규칙보다는 공손 믿음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개념을 연구 결과로 제시한 것은 브라운과 길만(Brown and Gilman)이다.²

² Brown, R. & Gilman, A.(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ebeok, T. (ed.) 『Style in Language』, Boston: MIT Press. pp 253-276.

브라운과 길만(Brown and Gilman)은 유럽 언어들(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경어법을 연구하면서 힘과 유대 두 요인이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유대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연구한 손호민은 수직적인 힘과 수평적인 유대는 어느 사회에건 상호 작용하게 마련인데, 힘(서열, 위계)의 차원에서는 신분, 연령의 높고 낮음에 따라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고, 유대(친분, 친화력)의 차원에서는 대인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거리감과 친숙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한국어에서도 전통적인 수직사회의 특성인 힘의 차원과 점차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수평사회의 유대가 함께 혼재된 구조를 보인다고 하였다.³

한국어 경어 체계 중 호칭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의 순위는 어떠할까? 요인은 일단 힘(서열)과 유대(친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연령, 직위, 항렬 등 세분하면 모두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이들은 결국 서열로 통합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유대도 동향, 동창, 동본 등과 함께 직장, 이웃, 친구 등이 한 요인 속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열에 대해 보면, 한국 사회는 집단의식의 원형으로서의 가족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인 전통적인 가족 간의 인간관계인데, 가족관계의 특징은 사회생활의 기본인 질서의식에서 나온 서열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사이에는 지배-복종의 종적 관계를, 부모 자식 간에는 권위-복종의 종적 관계를 이루며, 개인보다 가족, 가문이 더 우위에 있다. 이 가족주의가 사회로 확대되면서, 서열도 상하좌우, 선후주종의 차등에 따라 자리 매김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연령에 따른 윗사람-아래사람, 친척항렬에 따른 손윗사람-손아래사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연공서열에 따른 선배(선생)-후배(제자)와 군대나 직장의 지위에 의한 상관-부하 등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각종 서열은 유대의 정도에 따라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체통과 품행 등의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 되며, 그 기저에는 한국 사회에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사고라는 큰 틀이 자리하면서 한국어의 특정한 언어 형태와 표현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표현들이 어휘, 형태 그리고 통사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문법적 어법으로 정리된다.⁴

그러면, 2 인칭 대명사에서 ‘너’라고 부르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어색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장’ ‘박 교수’의 3 인칭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서열(연령)에 변화가 온 것도

³ Sohn, Ho-min(1983), 「Power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vol.3, pp 97-122.

⁴ 화자나 청자나 혹은 화제 대상이 되는 인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신분, 연령, 친분관계)에 따라 청자대우, 주체대우, 객체대우의 문법적인 경어 체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예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니고, 친분에 거리감이 생긴 것도 아니다. 변화가 생겼다면 서열의 다른 한 차원인 사회적 지위(social rank)가 바뀌면서 묵시적으로 기대되는 격식성(formality)일 것이다. 서로 점잖은 체면에 아이들처럼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어른스럽게 체통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하에 청자의 지위에 대한 격식성이 청자와의 인간적인 친분을 앞서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서열 현상을 잘 보여주는 대학교 선배-후배 사이의 호칭 선택을 보면 힘(서열)이 유대(친분)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경어법 선택의 요인으로 힘이 유대를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힘(서열)의 벽을 초월할 수 있는 유대(친분)의 폭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사람이면 그 폭이 아주 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형이나 언니 혹은 선배를 ‘너’로 호칭할 수 없는 서열의 강력한 통제력은 친분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두꺼운 벽이라는 것이 현재에도 남아 있는 실제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 현실이다.

한국어에서의 호칭은 힘과 유대의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의 책략이라기보다는 신분, 지위의 차이, 연령의 차이, 친족 관계의 위아래 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규범에 따른 책략이며, 여기에 격식성을 포함하는 유대에 내포된 2 인칭 표현은 화자의 의도에서 나온 개인적 책략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의 위계성이 결정되면서, 적절한 3 인칭 호칭으로 2 인칭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어 호칭의 특수한 현상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2.2 사라진 한국어 속의 2 인칭 대명사⁵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는 그 목록 자체의 구성도 완전히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외국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의 2 인칭 세계는 외국인으로서 그 큰 제약과 더불어 그 안에 내재된 복잡미묘한 뉴앙스를 완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문법적으로는 “영수야, 영수는 나를 도와주겠니?” 와 같은 문장에서 두 번째 영수가 대명사화(pronominalization) 해서 “영수야, 너는 나를 도와주겠니?”와 같은 문장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어문법에 근거한 대화체이다. 또한 문법적인 면에서는 틀림없이 “교수님, 교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와 같은 문장에서 두 번째 ‘교수님’이 대명사화해서 “교수님, 어르신네(또는 ‘댁’이나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같은 문장으로 되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되면 비문법적인 또는 지극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⁵ 여기서 ‘사라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 문법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상 사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아 ‘사라진 것과 같은’ 한국어의 언어 현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한국어 2 인칭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문법적 규칙으로 보면 두 번째 명사가 대명사화 해야 하는데 사회언어학적 규범으로는 그것이 어색하며 심지어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학교문법 혹은 그 양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어 2 인칭 대명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⁶

| 청자 신분 | 경어 등급 | 2 인칭 대명사 |
|-------|---------|-----------------------|
| 상위 | 가장 높임 | 어르신, 어르신네(귀하, 각하, 귀댁) |
| 동위 | 많이 높임 | 댁 |
| | 보통 높임 | 당신 |
| 하위 | 조금 높임 | 자네 |
| | (조금 낮춤) | (자기) |
| | 보통 낮춤 | 너 |

이것은 대략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 체계를 위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도표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학교문법식의 설명만을 믿고 이것들을 ‘2 인칭 대명사 자리’에 넣어 사용한다면 아주 어색한 한국어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부적절하게 배웠다고 야단을 맞거나 심지어는 싸움 날 수도 있다. 한국어 2 인칭 대명사 사용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은 반말 사용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대상에게 쓰여질 수 있는 평칭의 ‘너’ 하나뿐이다. 즉 한국어 2 인칭 대명사는 존대해야 할 대상에게는 근본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언어 현실이다.

2 인칭 대명사 하나하나의 용법이 유달리 까다로운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가. 어르신은 뭘 드시겠어요?

나. 댁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어르신(네)’과 ‘댁’은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말로서, 현실 생활에서 그 용도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댁’은 듣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댁’은 주로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사용된다. “내가 댁한테

⁶ 이익섭(1994), 「한국어의 호칭과 경어법」, 『사회언어학』, 민음사, 202 면- 205 면.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는 그 목록 자체의 구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댁’이나 ‘귀댁’, ‘귀하’, ‘각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2 인칭 호칭이므로 목록에서 흔히 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기’도 이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학자마다 틀리게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여기 부분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

돈이라도 꾸었던 말이오? 그것은 닥의 사정이오.”와 같이 시비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경어 등급으로 볼 때는 많이 높은 경어 호칭인 ‘닥’이 자칫하다가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거북한 경어 호칭으로 돌변할 수 있다. ‘어르신(네)’은 친면이 있거나 없거나 사용되는 극존칭의 대명사이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으로 노인 연장자를 상대로 할 때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경어 호칭이 된다. 경로대학 강사가 노인 어른을 공경하는 말로 다른 3 인칭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적 정서로 볼 때 가능하지 않다. “어르신들은 날씨가 쌀쌀해지니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셔야지요?”

(2) 가. 각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시지요.

나. 귀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각하’의 사용은 거의 대통령 이외에 사용이 안되는 매우 한정적인 호칭이다.⁷ ‘귀하’도 말보다는 글에 쓰이면서, 극히 격식적인 용법에 한정되어 있다. 혹은 ‘김영호 귀하’ 처럼 편지 수신인 밑에서 일종의 접미사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특이한 호칭이다.

(3) 가. 당신?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당신 당신 하는거야?

나.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2 인칭 대명사 가운데, 그 용법이 가장 미묘한 것이 ‘당신’이다. ‘너’나 ‘자네’보다 상대방을 약간 높여주는 등급이면서 결국은 아랫사람에게 쓰는 등급임에 틀림없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선택해 쓰기가 아주 까다롭다. 한국사람에게 ‘당신’은 대개 중년 이상의 부부 사이에서나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일 뿐이다.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시비용’으로 들먹일 때 거론되는데, 그것은 이 호칭 자체에 일정한 갈등이나 냉담을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서가 아니라면 보통 맥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라는 광고문이나 책 또는 TV 프로그램 제목 같은 글에서 불특정 독자를 자유롭게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제목으로서는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신’의 정체가 내가 끼는 타인과의 일대일의 사이에서는 왜 변색되는 것일까?⁸ ‘너무 가까운 당신’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의 정체는 사회적 관계로 접근되기에는 너무

⁷ 문화대학 한국어과 대학원 수업 중 ‘귀하’ 2 인칭 대명사가 대만에서는 군대나 정보부 같은 극히 권위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⁸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와 같은 문장에서 ‘당신’이 ‘자기’를 높여 이르는 3 인칭 선행사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대명사로서의 특별한 용도이다.

친밀한 영역으로 이 선을 넘어 적절한 거리감이 없어질 때 너무 깊은 사적 영역을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의 불편한 관계로 변하기 쉽다. 친하지 않거나 낯선 사이에서 반감으로 다가오는 ‘당신’이 ‘시비용’으로 잘 이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4) 가. 자네가 이것을 좀 해주겠나?

나. 자네를 생각은 하면서도 생활이 바쁘다 보니 연락을 못했네.

‘자네’의 용법도 단순치는 않다. 한국에서 ‘자네’를 쓸 수 있는 상대로서는 고등학생 나이 이상의 대학생 또래가 되어야 ‘자네’의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다. 화자 스스로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어색하지 않다. ‘자네’ 호칭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의 성별에서도 제한을 받는 경향이 있다. 여자들이 ‘자네’라는 호칭을 덜 쓸 뿐만 아니라 여자한테도 ‘자네’로 부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편하지 않다.

(5) 가. 자기도 이것을 먹고 싶어?

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야?

‘자기’는 근래에 확산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신세대 호칭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안쓰이는 호칭이다. 그래서 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2 인칭 정식 대명사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세대 전용이라는 제약 이외에, 이 대명사는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만 쓰여야 어울리는 특수한 2 인칭 대명사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2 인칭 대명사 ‘너’를 존대하여 경칭으로 부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혹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칭의 경우 그 제약이 아주 커서 만만하게 접근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대행 3 인칭 명사 호칭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 2 인칭 대명사 중에서 온전한 대명사는 적어도 구어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너희, 너희들)’ 하나뿐이다.

(6) 가. 너는 고향이 어디니?

나. 넌가 원하는 것을 말해 봐.

한국 사회에서 ‘너’라는 2 인칭 대명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상은 직접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략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동기생 사이라고 본다. 혹은 대학교나 사회 생활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이에서 ‘너’라는 호칭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존대할 조건에 있지 않는 아랫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대개 고등학교 이후를 사회의 성인으로 취급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성인 어른에게 ‘너’의 대명사 호칭 사용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2.3 2인칭 대명사 대행: 3인칭 명사 호칭 인플레이션

서열과 친분 그리고 뉴앙스에 따라 세세하게 상하로 구분되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어 경어법 언어예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대해야 할 대상에게 2인칭 대명사를 쓸 수 없는 언어 현실은 여기에 대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3인칭 명사 호칭을 아주 다양하게 발달시켜 왔다.

그러면,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자. 한국어에서 호칭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본고에서는 힘(연령, 사회적 지위 등)과 유대(친분 정도)의 두 가지 범주를 들었다. 우선 처음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와 같은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인사형식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나 주어는 생략하고 화자 자신의 이름만을 대고 우선 대화에 들어간다.⁹ 아래와 같이 (7-가) 같이 시작된 대화가 일단 상대방과의 위계성이 결정되면, 적절한 3인칭 명사 호칭으로 2인칭 대명사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7) 가. {zero}, {zero} 뭘 드시겠어요?

나. 교수님, {교수님은} 뭘 드시겠어요?

다. 교수님, {zero} 뭘 드시겠어요?

*라. 교수님, {귀하는, 님은, 그대는, 당신은} 뭘 드시겠어요?

(7-나)에서 두 번째 교수님은 (7-라)처럼 2인칭 대명사화하는 것이 문법적인 정석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용인성(social acceptability) 면에서 비문장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7-다)의 경우이다. 즉 한국에서는 존칭을 사용해야 할 대상에게는 2인칭 대명사의 자리를 제로 {zero} 형태로 비워둔다. 그렇지 않으면, (7-나)에서 처럼 2인칭 대행 3인칭 명사 호칭 ‘교수님’을 다시 써야 하므로 3인칭 명사 호칭이 다양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 속의 2인칭 대행 3인칭

⁹ 한국어의 특성 중의 하나가 주어 없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인칭 자리에 마땅한 3인칭 명사 호칭을 댈 수 없다면(즉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 얼른 결정되지 않으면) 흔히 호칭 없이 대화를 이어간다. 예를 든다면, 성명에 ‘씨’를 붙여 부르기에는 좀 윗사람이고 또 ‘형’ ‘언니’란 친근 호칭어로 부를 만큼 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한국 사람이면 대개 가능한 한 호칭을 빼고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어 호칭어 체계에서 영형(zero) 호칭어를 별도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명사 호칭들은 힘과 유대 관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 (8) 가. {연령서열형}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 {가족친족형} 이모는 뭘 드시겠어요?
- 다. {신분지위형} 국회의원 넌께서 원하시면 내일 갖다 드리겠어요.
- 라. {이름성명형} 김영희 씨(님)가 찾으시는 것이 없는데요.
- 마. {사회통칭형} 아주머니는 이 옷이 잘 어울려요.
- 바. {별호별칭형} 꼭다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¹⁰

3 인칭 명사 호칭을 가져다가 2 인칭 대명사처럼 사용하다보니 무수한 호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¹¹ 한국어 속에서 쓰임이 자유로운 2 인칭 대표 주자인 ‘너’를 제외하고 마땅한 2 인칭 경칭 대명사를 찾기 힘든 현상은 ‘나’를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혈연 집단 속에서의 관계나 서열이 엄격한 사회적 신분 관계 속에서의 ‘나’로 보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존대가 당연시되는 상대로부터 어떻게 불려지는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연히 2 인칭 대명사 사용에 까다롭게 되고 담화에서 2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각종 친족어, 직함어 등 3 인칭 명사로 대행하는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즉 2 인칭 대명사 사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직접성(zero 거리감)으로 인한 민감성이 완화되면서 겸양의 효과까지 얻으려는 데서 온 게 아닐까 한다. 이 부분은 문화적 문법 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2 인칭 대명사 대행으로 실제 사용되는 3 인칭 명사 호칭의 다양함을 우선 이해하기 위해 기업체 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영길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보겠다. 그에 대하여 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3 인칭 명사 호칭을 대략 서열(연령과 사회적 지위)과 유대(친분 정도)의 기능으로 나열하여 크게 네 개념(직함호칭어, 두루 높임 호칭어, 두루 높임 친근 호칭어, 두루 낮춤 호칭어)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여기 열거한 것 이외에도 다른 명칭이 더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쓰임의 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¹⁰ 별호(別號)는 일반적으로 호를 가리키며, 우아하게 부른다 하여 아호(雅號)라고 하기도 한다. 성호(星湖)나 다산(茶山) 같이 지역 이름에서 취한 것이 있고, 의암(義庵) 또는 경재(敬齋) 등의 아호는 덕목에서 취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별칭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별명(別名), 필명(筆名), 예명(藝名), 아명(兒名), 당호(堂號), 시호(諡號)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울대’ 같이 출신지명으로 부르는 택호(宅號)도 여기에 속한다.

¹¹ 한국어 속에는 사실상 본고에서 언급된 예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3 인칭 명사 호칭도 볼 수 있다. ‘네 놈, 네 녀석, 너 이 자식(새끼), 그쪽, 거기, 그대, 젊은이, 임자 등이며, 또한 변이형 3 인칭도 간혹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여보세요’에서 변이형으로 나타난 ‘여보(시)게’, ‘여보시오’를 들 수 있다. “여보(시)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부장님 - 김 부장님 - 김영길 부장님 - 김 부장 - 김 선생(님)·사장(님) - 김영길 선생(님)·사장(님) - 김영길 씨(님) - 영길 씨 - 김 씨 - 김영길 형(님)·선배(님) - 김 형 - 영길 형 - 김영길 군(김영길 학생) - 김 군 - 영길 군(영길 학생) - 김영길 - 영길이 - 영길아(너)’¹²

다음 (9)-(12)에서 일부 예들은 박영순의 체계를 참고로 하였다.¹³

- (9) 가. {지위 + 님} 부장님은 괜찮으세요?
- 나. {성 + 지위 + 님} 김 부장님은 괜찮으세요?
- 다. {성명 + 지위 + 님} 김영길 부장님은 괜찮으세요?
- 라. {성 + 지위} 김 부장은 괜찮으세요?

우선 첫째, (9-가) - (9-라)에서의 경우는 직장에서의 직함을 나타내는 3 인칭 명사 호칭으로 상대에 대한 높임과 친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예이다. 직함 호칭을 ‘성(姓)’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때, 최고의 존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대통령 각하’ ‘박 교수님’ ‘김 부장님’보다는 ‘대통령 각하’ ‘교수님’ ‘부장님’이라고 칭할 때, 존대감과 친근감을 다 같이 표시하게 된다. (9-다)처럼 ‘김영길 부장님’이라고 할 경우는 주로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 이상이 있을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정식 소개가 필요한 상황일 때 사용된다. (9-라)에서 그냥 ‘김 부장’이라고 부담 없이 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윗사람이거나 ‘격의 없는 예의’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주 친한 동료가 될 것이다. 즉 ‘김 부장’은 격식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영길’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친한 사람에게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 (10) 가. {성 + 선생(님), 사장(님)} 김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¹² 여기서 ‘씨’ ‘군’이 대우 호칭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서 ‘김 씨’ ‘김 군’ 등으로 표기되지만, 청자에게 하대 호칭어로 칭하게 되는 경우에는 접미사 형태인 ‘김씨’ ‘김군’ 등으로 불려지거나 쓰여진다.

¹³ 박영순(2001),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272 면. 사회언어학적 접근으로 한국어의 호칭을 연구하였다. 호칭과 등분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2 인칭 대명사와 대행 3 인칭 명사 호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 등분 | 호칭 | 예 |
|----|---------------|---------------------|
| 6 | 지위 + 님 | 교수님, 선생님, 과장님 |
| 5 | 성 + 지위 + 님 | 김 교수님, 이 선생님, 이 과장님 |
| 4 | (성)+ 지위 | 김선생 |
| 3 | 자네, 여보게, 군, 양 | 자네, 여보게, 김군, 김양 |
| 2 | 이름 + 이 | 인선이, 명환이 |
| 1 | 이름 + 야, 너 | 철수야, (너) |

나. {성명 + 선생(님), 사장(님)} 김영길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다. {성명 + 씨, 님} 김영길 씨(님)는 괜찮으세요?

라. {이름 + 씨} 영길 씨는 괜찮으세요?

마. {성 + 씨} 김씨는 괜찮으세요?

둘째, 직장 밖에서 혹은 적절한 호칭어를 찾지 못했을 때 직함호칭어가 두루 높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¹⁴ (10-가)와 (10-나)의 경우는 가장 흔하게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칭용 직함호칭어 예들이다. 어른 남성 청자에게는 ‘선생님’ ‘사장님’ 등이 가장 많이 불리며, 어른 여성의 경우는 ‘사모님’ 호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선생’은 원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직함이지만, 청자가 교직에 있지 않더라도 화이트칼라 층에 속해 있다고 보여지면 두루 높임으로 ‘선생님’으로 불려지고 있다. ‘사장’도 원래는 회사 혹은 사업 책임자의 직함이지만 청자에 대하여 우대와 호감을 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장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모님’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⁵ ‘김영길 선생님’의 경우 ‘김 선생님’보다는 격식을 차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친근감에서는 좀 떨어진다.

한국 대학교 교수 사회에서의 예를 보면, 직함호칭어는 ‘교수’이지만, 어느 정도 동료로서의 친분 관계가 형성되면 ‘김 교수님’에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김 선생님’으로 호칭되고 더 가까워지면 그냥 ‘선생님’으로 바뀌게 마련이다. 가장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장소에서는 ‘김영길 교수님’으로 표현된다.

(10-다) - (10-마)는 한국 사회에서 두루 높임 호칭으로 쓰이는 ‘씨(氏)’의 애매모호한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과거로부터 직함 위주의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왔다. 이전 신분의 구별이 뚜렷한 사회에서는 ‘○○○대감’ ‘○○○영감’ 등으로 두루 높이는 존대를 표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직함이 불분명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공존 관계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예의를 지켜야 할 다양한 사람들에게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존대 호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게 대우하는 언어 표현을 써야 할 때 딱히 ‘선생’과 ‘사장’의 직함호칭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2인칭 경칭 대명사 사용 용법이 극히 제한된 한국어의 언어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 존칭 접미사 ‘씨(氏)’이다. 영어의 ‘Mr.’ 처럼 직함을 대신하면서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존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씨’라는 두루 높임 호칭은 통상적으로 대등한 관계의

¹⁴ ‘두루 높임’은 한국의 상대 높임법에서 「하오체」와 「합쇼체」에 두루 쓰이는 「해요체」를 지칭한다.

¹⁵ 박정운(2005), 「제3장 한국어 호칭의 세계」 『한국 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亦樂, 85면.

상한선인 4 - 5 세 정도 나이 차이에서만 부담없이 쓸 수 있다. 만약 대등한 관계나 손아래 사람한테 쓸 때는 존대를 표하는 부드러운 말투가 될 수 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에게 ‘씨’를 붙이면 매우 불쾌하고 버릇없는 태도로 보여지므로 아주 조심스러운 용법이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10-마)의 경우이다. 존대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접미사 ‘씨’는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영길 씨’, 혹은 ‘영길 씨’는 대등한 관계 혹은 아랫사람인 경우에서 상대를 높여 부를 때 사용되지만, ‘성(姓) + 씨’, 즉 ‘씨’가 ‘성(姓)’하고만 결합할 경우 전혀 다른ニュ앙스를 주게 된다. (10-마)의 예에서 ‘김영길’을 ‘김씨’라고만 부를 때 상대방을 높여주는 등급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존대보다는 하대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이 화자보다 명백하게 낮은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 대부분 비전문직 육체 노동자 층에 속해 있거나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 신분으로 인식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이 사용할 때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다.

(10-다)에서 일반적으로 ‘씨’보다는 ‘님’이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즉 ‘김영길 님’이 ‘김영길 씨’보다 더 존대의 어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성명 + 님’은 극히 제한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직접 접촉이 필요 없는 인터넷 통신언어에서나, 관공서 은행 등에서 고객에게 한정되어 사용될 뿐 일대일의 보통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11) 가. {성명 + 형(님), 선배(님)}

김영길 형님(선배님)은 괜찮으세요?

나. {성 + 형} 김형은 괜찮으세요?

다. {이름 + 형} 영길 형은 괜찮으세요?

세제는 직장 밖의 상황에서 두루 높임 쓰임이 친근 호칭형으로서의 전이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11-가) - (11-다)에서 ‘형(님)’ ‘선배(님)’ 등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호칭들은 청자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친근하게 되었을 때 유대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으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즉, ‘김영길 선생님’ ‘김영길 씨’가 친근과 유대를 보여주는 ‘형’ ‘선배’ 유형으로 변화된다. 서양 언어권에서는 이러한 친근 호칭형으로서의 전이를 결정하는 주도권은윗사람에 있으며, 친근형으로 전이됨에 따라 수직적 상하관계가 가까운 수평적 대화 관계로 변화된다.¹⁶ 예를 들면, ‘Mr. Gordon’ 혹은 ‘Professor Gordon’ 존칭 호칭 형태가 청자의 제안 혹은 허락으로 ‘Bill’ 이름 호칭 형태로 쓸 수 있게

¹⁶ 박정운(2005), 앞의 책, 90 면-93 면.

되면서 유대(친분 정도)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¹⁷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계가 아무리 친하게 발전된다 하더라도 서열(연령, 사회적 지위)을 나타내는 ‘김영길 선배님’ ‘김영길 부장님’이 ‘영길’로 전환되어 부르게 되지 않는다. 친분 정도가 서열을 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 언어 표현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대신 친근 호칭형인 ‘형(님)’ ‘선배(님)’ 등으로 아랫사람이 먼저 부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아랫사람임을 밝히게 된다. 이것으로 서열(위계성)과 유대(친근감) 두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편안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2) 가. {성명 + 군, 양, 학생} 김영길 군은 괜찮나?

나. {성 + 군, 양} 김군은 괜찮나?

다. {이름 + 군, 양, 학생} 영길 군은 괜찮나?

라. {성명 + (zero)} 김영길은 괜찮나?

마. {이름 + 이} 영길이는 괜찮나?

바. {이름 + 아(야), 너} 영길아, 너는 괜찮아(니, 냐)?

넷째, (12-가) - (12-바)의 경우는 두루 낫춤의 여러 상황을 나타낸다.¹⁸ 본고의 예로 나온 ‘김영길’ 같은 어른 청자의 경우에 청자가 동생이거나 제자 혹은 학창시절의 친분 관계가 있다면, (12-바)와 같이 2 인칭 대명사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때 호격조사 ‘아/야’를 붙여 ‘영길아, 너...’의 형태로 사용된다. 그러나 (12-마)처럼 성인 어른의 청자에게 ‘너’ 유형으로 부르기는 부담스러운 경우 이름에 접미사 ‘이’를 붙여 대화를 이어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름 + 이’는 친근감을 주지만 ‘성명 + 이’로 될 때는 친근감이 아니라 꾸짖는 어조 혹은 거리감을 나타내는ニュ앙으로 들릴 수 있다. 즉, “김영길이는 괜찮나?”라기 보다는 (12-라)의 “김영길은 괜찮나?” 혹은 (12-마)의 “영길이는 괜찮나?”로 부르는 것이 친근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들리며, 또한 이름만인 ‘영길이는’을 사용할 때가 성까지 붙인 ‘김영길은’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2-가) - (12-다)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개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를 성인 어른으로 보며, 성명 혹은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우 호칭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로 ‘군(君)’과 ‘양(嬢)’의 사용으로 좁혀볼 수 있다.¹⁹ 직장 혹은 학교 같은 조직 내에서 하급자가

¹⁷ 영어의 경우 2 인칭 대명사 ‘you’가 서열과 친분 정도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직적 관계로부터 진정한 수평적 관계로의 전이를 의미하는 이름만을 쓰는 친근 호칭어 사용에 부담이 없는 것이다.

¹⁸ ‘두루 낫춤’은 한국의 상대 높임법에서 「해라체」와 「하계체」에 두루 쓰이는 「해체」를 지칭한다.

¹⁹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 따르면, ‘군’·‘양’은 모두 일본말에서 가져다 쓴

10년 이상 연하자로서 양해가 되거나 친숙한 미혼자 및 미성년은 ‘군’ 혹은 ‘양’을 붙여서 부른다. 통상적으로 본인보다 10년 미만의 연하의 경우와 기혼자일 경우는 ‘○○○ 씨’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이다. 현재 학교 같은 조직 내에서 흔히 불려지는 ‘학생’ 호칭이 일반 사회에서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연령별로 보이는 성인 어른에게 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의 설명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어에서 3인칭 명사 호칭이 2인칭 대명사를 대행하다 보니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언어 현실이다. 한국어 2인칭 대명사 대표 주자는 한마디로 ‘너’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밖은 거의 모두가 용법이 제한된 2인칭 대명사이거나 그것을 대행하는 3인칭 명사 호칭들일 뿐이다. 한국사람은 여기에서 열거된 호칭들을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각 호칭이 갖고 있는 미묘한ニュ앙스를 직감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 직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유쾌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

2.4 가족 호칭의 확장: 감정이입(empathy) 사회통칭어

한국어 속의 가족 호칭이 일반인에 대해 통칭으로 변화된 사회통칭어는 3인칭 명사 호칭의 일부가 될 것이며,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로 보겠다.

- (13) 가. {옷가게에서} 아버님은 키가 크시니 이 청바지가 잘 어울려요.
 나. {미용원에서} 언니가 원하는 대로 파마가 잘 나왔어요.
 다. {시장에서} 어머님이 너무 깎으시면 안돼요.
 라. {경로대학에서}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마. {식당에서} 아줌마가 해 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바. {공사장에서} 아저씨는 이 일부터 시작해 주세요.
 사. {다방에서} 아가씨는 고향이 어디지?
 아. {대학에서} 오빠는 언제 복학했어요?

일반적으로 가족 혹은 친족 호칭이 사회통칭어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외관상의 나이’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50대 전후로 되어 보이는 식당의 여주인 혹은 종업원을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의

것으로 순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주장은 ‘군’을 ‘씨’ 혹은 ‘형’으로 바꾸어 쓰고, ‘양’도 군이 성별을 표시 안 해도 되면 ‘씨’로 통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은 한국 사회 정서와 기능 양면을 고려할 때 ‘군’·‘양’ 연령층에 가장 무난한 3인칭 호칭어로 ‘학생’을 들고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아줌마’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이 경우 청자가 화자의 아주머니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나이라면 전형적으로 누군가의 아주머니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자가 나이로 보아 전형적으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듯 싶으면, 부르는 사람이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니’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런 것이다. 근래에 한국 사회에서는 ‘언니’라는 호칭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부르는 이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흔히 불려지는 ‘언니’ 호칭어는 과거에 ‘아가씨’ ‘아줌마’로 불리던 연령층의 여성 청자들로 그 사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아가씨’ 혹은 ‘아줌마’라는 말이 좋지 않은 어감을 얻게 되면서 중립적인 ‘언니’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청자가 화자의 언니나 언니별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청자가 전형적으로 누군가의 언니가 될 수 있는 나이의 여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을 더해준다.

‘아저씨’는 어떤 불특정한 남성 어른에 대하여 쓰이는데, 원래는 ‘삼촌’에 상응하는 친족 호칭어로서 현대에 들어와 비 친족에게 사용이 확산되면서 ‘아주머니(아줌마)’의 경우처럼 친족 호칭어 기능을 잃고 사회통칭어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보통 ‘아줌마’ ‘아저씨’의 범주에는 젊음이 갔다라는 갈등 심리가 들어 있고 사회계층 측면에서도 존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를 어른별로 대우하여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에 거슬릴 수 있다. 그 대체 호칭어로 선호되는 것이 ‘이모’ ‘삼촌’이다. 친근감을 잃지 않으면서 비교적 깔끔하게 들리므로 화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사회통칭어로 환영을 받고 있다.

가족 호칭어 중에 최근 들어 급속하게 사회통칭어로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사회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빠’이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최근 10 여 년 사이에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이 남자 선배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 이전 세대 여성은 남자 선배를 ‘형’이라 불렀다. 이 ‘오빠’는 젊은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애인을 부르는 말을 겸하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가족 호칭어가 사회통칭어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언어 현상에 대해 그 개념을 정리해 보겠다.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사용되던 가족 호칭어 어휘가 사회통칭어로 확장되어 차용되면서 의미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관용어로 굳어져서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 변화는 서열(연령, 사회적 지위)의 문제로서가 아니고 유대(친화력)의 문제와 상관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김선희는 감정이입(empathy) 개념을 언어예절에서의 여성어와 공손법 접근에 사용하고 있다.²⁰ 즉 담화에서 친화력(solidarity)이 강해질 때 담화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담화의 한 방법으로 감정이입을 강화하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담화 행위에서의 화자와

²⁰ 김선희(2001), 『우리 사회 속의 우리말』, 한국문화사, 19면 - 20면.

참여자간의 동일한 관점을 표현하도록 하는 개인적 책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이입은 독일 철학자 립스(T. Lipps)가 주창한 개념으로²¹ 이것을 언어학자들은 친화력이 강해질 때 담화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족 호칭을 사회통칭어로 사용하는 사회적 현상은 감정이입의 효과를 기대하는 언중의 언어 책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화자와 청자가 이해관계에 있을 때, 화자는 이해상관을 고려하여 청자에게 감정이입을 위한 표현을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집단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화자는 가족의 호칭을 빌어 사용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 이는 상술 등 이해관계를 위한 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손호민(Sohn, Ho-min)에서는 가족관계의 호칭이 사회로 확대되는 것은 가족과 같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인간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보았다.²²

3. 문화적 문법 접근

한국어 경어법 체계에서 존대해야 할 대상에게 2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없는 언어 현실과 3 인칭 명사 호칭으로 2 인칭 대명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힘과 유대라는 사회적 문법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존대와 우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3 인칭 명사 호칭이 2 인칭 대명사를 대행하면서 파생되는 많은 호칭 인플레이션은 힘과 유대의 차원에서 볼 때, 신분, 지위의 차이, 연령의 차이, 친족관계의 연줄망 사회 관계 속에서 존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사회적 규범에 따른 언어 책략이며, 여기에 사회통칭어로 대표되는 가족적 호칭의 쓰임은 유대(친화력)를 강화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로서 개인적 책략의 성격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존대해야 할 대상을 고려하여 생기는 3 인칭 명사 호칭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일단 사회적 문법 접근에서 힘으로 대표되는 서열(연령, 사회적 지위)과 감정을 반영하는 유대(친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압축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²¹ 김선희(2001), 앞의 책, 19 면. 일부분 재인용. 김재은(1984), 『예술심리학』, 이화여대출판사. 독일 철학자 T. Lipps 는 타인과 동식물, 기타 자연에 나타나는 표정, 몸짓, 현상 등을 조망할 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그것들이 가지는 감정을 추측한다든지, 혹은 그러한 감정을 지니는 심적 활동이 예술, 특히 미술에서 잘 이루어지는 데 착안, 이를 미의식의 근본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대상에 투시되어 자기와 대상과의 융합을 의식하는 심적 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²² Sohn, Ho-min(1983), *ibid.*, pp 97-122.

설명체계를 문화적 문법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즉 이런 언어 현실은 한국 사회 문화 속에 무의식으로 존재하는 집체 의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문화적 문법 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 정수복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병폐가 무교(巫敎)-유교(儒敎)의 ‘잘못된 만남’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방대한 담론으로 풀어 놓으면서 이것들을 설명할 틀을 문화적 문법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문화적 문법을 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방대한 담론을 내놓고 있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부터 시작하여 이규태, 최재석, 김태길, 이어령, 김재은, 김열규 등 많은 학자들이 한국인의 성격론에 대한 방대한 담론을 그 나름대로 풀어 왔으며, 이 방대한 담론들에 논의된 내용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지만, 어떤 일정한 이론적 틀에 맞추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위에 언급한 담론식의 분석적 설명과 함께 계량적 통계적 연구로 문화적 문법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홉스테드(Hofstede, G.)라는 네델란드 학자가 쓴 『세계의 문화와 조직』을 참고하여 한국인을 한국인에게 하는 특질들에 대하여 대이론(grand theory)으로서의 문화적 문법으로 설명이 가능한가를 찾아 보았다.²⁴ 이 이론에 의하면, 세계의 문화는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 4 개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네 요소를 보면, 권력거리를 멀게 느끼느냐 아니면 가깝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구분이 두 번째이고, 세번째로는 많은 문화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고, 네번째로는 불확실한 것을 얼마나 참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홉스테드는 하나의 문화요소를 더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동양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유교적 역동성’이라 표현했다.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장기 지향과 단기 지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쉽게 해석한다면 인생을 얼마나 멀리 보느냐는 것인데, 홉스테드는 이 요인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작은 용들(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²⁵

²³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생각의 나무, 15면 - 28면.

²⁴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18면 - 26면. 일부 개념 재인용.

²⁵ Hofstede, Geert(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pp 29-33. 여기서 인용된 5 가지 요소의 영문은 다음과 같다: Power Distance Index(PDI), Individualism(IDV), Masculinity(MAS), Uncertainty Avoidance Index(UAI) and Long-Term Orientation(LTO).

3.1 가족주의와 어른(家長)

문화적 문법을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이라고 개념화한다면, 한국어 속에 나타나는 존대할 대상에게 쓸 수 있는 2 인칭 대명사가 사실상 없으며, 온전한 2 인칭 대명사로서 오직 ‘너’만이 사용상 자유롭다는 언어 현실은 한국의 가족주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자고이래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 부자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적 인간관계는 한국인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의 형식 또는 양식인 것이다. 전통한국사회는 농업이 생업의 중심으로 여지가 없는 잔인한 자연에 끝없는 인고로 자연에 순응하고, 사회와 초자연에 복종하며, 안정과 질서를 찾으면서, 생존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효도가 백행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가족주의의 중심인 부자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가를 확인하게 해준다. 최재석은 일찌기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면서 그 기저를 이루는 것이 가족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⁶ 이러한 가족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모든 사회관계는 사회의 모든 집단을 일단 집으로 의지하며, 그 집단성원의 행동양식이 집(家)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와 동일하다고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반영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부자관계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나타내며, 이 상하적 관계가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표현에 잘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넓게는 존칭어와 비칭어라는 준비어는 그 원형이 가족관계에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존재하던 절대적 가부장의 위치나 신분계층의 엄격성, 동족위주주의 등은 현존하는 언어적 표현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마가레트 미드라 불리는 나카네 지에(Nakane, C.)도 일본사회에 내재하는 상하적 인간관계는 일본문화의 ‘문화문법’이므로, 표면상으로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상하관계가 많이 소멸된 것 같지마는, 그 저류에는 불변적인 것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⁷ 따라서 문화적 문법은 문장의 표현과는 달리 쉽게 변화지 않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문화적 문법으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상하관계 위계성 인지구조는 이외에도 무한정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준비관계와 그밖의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위상어(位相語)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3 인칭 명사 존칭어 호칭을 나타내는 말은 ‘어른’ 범주적 사고, 즉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많아질

²⁶ 최재석(1965),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民朝社.

²⁷ Nakane, Chie(1970), 『Japanese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63-80.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일지라도 완전히 습득하여 자유롭게 구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에서 타나는 권위주의 모습은 홉스테드의 권력 거리(power distance)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홉스테드는 이 권력 거리를 ‘힘 없는 사람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일수록 권력이 사회의 기본 사실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상하 위계성의 불평등 구조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높다. 홉스테드는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한국은 조사대상인 53 개 국가 중에서 중간인 27 위에 들어간다.²⁸ 권력 거리가 작은 사회에는 대체로 1 세계 국가, 그 중에서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北歐)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을 비롯하여 동양의 작은 용들인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은 모두 권력거리가 중상위 좌우에 있으며 유교 영향권 밑에 있는 국가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것은 유교의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안정이 결국은 인간관계의 불평등한 관계의 수용에서 시발된다는 잠재된 의식적인 차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홉스테드는 권력층인 상부(회사에서는 사장)에서 제멋대로 해도 권력 많은 사람이 이래도 괜찮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는 경향을 잠재된 ‘복종의식(a sense of obligation)’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⁹ 강신표는 동아시아인의 행위에 있어 하나의 특징으로 상황중심의 경향을 들고 있다.³⁰ 추상적인 도덕률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대한 적절성에 의해서 행위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존대해야 할 대상에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3.2 극대화된 호칭 인플레이션: ‘어른(家長)’ 범주적 사고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파생된 ‘어른’ 범주적 사고의 변형이 구체적으로 2 인칭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3 인칭 명사 경칭 호칭의 극대화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어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다 자란 사람 ② 장가들거나 시집간 사람 ③ 나이나 지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④ ‘남의 아버지’를 조금 높여 일컫는 말. 의미영역에서 ‘성숙’ ‘지위’

²⁸ 최준식(1997), 앞의 책, 187 면 - 198 면. 홉스테드는 세계 문화의 비교를 위해 53 개 국가의 권력 거리 지수를 조사해서 표를 만들었다. 권력 거리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말레이시아, 과테말라, 필리핀, 아랍권 등 3 세계 국가들이 많았고, 반면 지수가 낮은 나라들로는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같은 1 세계 국가들로 되어 있다. 아시아 작은 용들을 비교하면 싱가포르가 13 위, 홍콩이 15 위, 대만이 29 위, 일본이 33 위로 나왔다.

²⁹ Romm, NRA & Hsu, CY(2002), 「Reconsidering the exploration of power distance: an active case study approach」. 『Omega』, 30, p. 410.

³⁰ 강신표 편(1985), 『한국문화연구』, 현암사, 37 면.

‘혼인’ ‘연령’으로 나누어지며, 반대어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어른과 아이의 위계성은 어른과 아이의 양극성인 상하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³¹ 문화적 문법으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상하관계 위계성 인지구조로 인하여 한국어에서 준비관계와 그밖의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위상어(位相語)가 다른 언어에 비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존대할 대상에게 2 인칭 대명사 대신 써야하는 3 인칭 명사 존칭어를 나타내는 말은 ‘어른’ 범주적 사고, 즉 권위주의로 인하여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한국인일지라도 이것을 모두 습득하여 완전히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다.

호칭 인플레이션을 홉스테드의 집단주의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남을 의식해야 한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빨리 알아채서 거기에 어느 정도라도 맞추어야 한다. 윗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체면 차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눈치로 그 속마음을 읽어야 한다. 이 두 태도는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사실 눈치나 체면이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눈치는 곧 ‘아침’으로 발전하기 쉽고, 체면은 ‘허세’로 되기 쉽다. 눈치의 책략적 측면으로 호칭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한국적 문화 코드인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무엇이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 한다.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바로 대고 ‘you’하면 되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직접 ‘너’ 혹은 ‘당신’이라고 하기보다는 3 인칭 명사 호칭을 갖다가 2 인칭 대명사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호칭이 많아진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본다면, 대부분의 직함에 높임의 뜻을 더하기 위해 수의적으로 붙는 접미사 ‘님’자의 남용 현상이 최근 들어 더 가중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³² 직함에 붙는 ‘님’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자. 이제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선생님’ 혹은 ‘교수님’은 엄격하게

³¹ 최재석(1965), 앞의 책, 78 면-79 면 참조. 한국사회에서 양극적 유형의 대표적인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예를 최재석은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장손 - 지손, 주인 - 하인(머슴, 식모, 하녀), 교사 - 생도, 상점주 - 점원, 선배 - 후배, 기업주 - 노동자, 상급생 - 하급생, 상관(사) - 부하, 남(존) - 여(비), 구장 - 소임, 반(양반) - 상(상민), 지주 - 소작인, 장(연장자) - 유(연소자), 교주(교직자) - 교인, 위정자(관) - 백성(민), 포주 - 창부, 적자 - 서자(사생아), 사승 - 상좌, 본실 - 소실, 존속(부, 조) - 비속(자, 손), 서울사람 - 시골사람, 시부모 - 자부, 큰집 - 작은집, 여당 - 야당, 큰형 - 작은형

³² ‘님’은 원래 의존명사로 분류된다. 사람의 성명이나 이름 다음에 붙어 ‘씨’의 높임말의 기능을 하는데, 주로 은행, 관공서 등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시(詩), 수필 등에서나, 근래 들어 인터넷상에서 2 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용법은 직위나 신분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기능이다.

말하면 인플레이션 된 존대 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래 중국 유교 문화에서 ‘선생(先生)’ 그 자체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표하는 극존칭 대우가 들어 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수’라는 직함호칭어 자체에도 이미 충분히 존대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굳이 ‘님’자를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론적 사고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무례한 태도로 비춰지어 사회관습에 크게 어긋나는 실례가 된다. 이것은 한 특정한 사회 관습에 부합하는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불문율 사고방식, 즉 문화적 문법이 관행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일대일 청자와의 살아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어법과는 독립적으로 높임말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역사 속의 ‘율곡 선생’이 ‘율곡 선생님’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칭해지면 어색하게 들리는 것도 그들이 개인이 대면해야 할 담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임말의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친족 명칭에 붙는 ‘님’의 규칙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형님’ ‘누님’ ‘큰아버님’은 가능하지만, ‘언니님’ ‘오빠님’ ‘아저씨님’ ‘외삼촌님’ ‘삼촌님’ 등은 성립이 안된다.³³ 문법적 규칙을 초월하며 관용화되어 통용되는 호칭 인플레이션 현상은 어른 범주적 사고하에서의 수직사회의 언어 현실라고 할 수 있다.

수직사회에서는 존대를 극대화하려는 존칭어 발달을 가져오며, 자기보다 윗사람, 특히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필요 이상의 아부성 짙은 언사와 자기비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사회 문화에 내재된 공통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문화적 문법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데, 특히 존칭어 호칭에서 문법적 변칙형태로 발전되는 경향은 권위주의가 농후한 사회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3.3 사회통칭어에 숨어 있는 ‘우리(weism)’ 의식: 가족의 확장

가족주의 사고 범주에서 나온 혈통지향적 성향은 “아무리 남이 가까워도 동기간보다는 못하다”와 같은 말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흔히 듣는 ‘우리’ 남편, ‘우리’ 동생과 같은 표현에서, ‘우리’라는 말은 물론 개인들이 모인 집단을 말하지만 원래는 ‘울타리’ 혹은 ‘집’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이른바 마음으로 한 통속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친화력의 출발점은 혈통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능한한 심지어 무조건 모두 봐주자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한국인의 이 ‘우리’ 정신은 우선주의 혹은 이기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가족 단위를 시발로 해서 더 큰 가족밖 구조로 확장된 것이다. 한국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³³ ‘오빠님’은 안되나 ‘오라버님’은 가능하다.

‘우리’라는 의식 집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 독립적인 이성이 발휘할 여지는 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한 우리 안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다. 즉 같은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집단에서 내적 규율만 잘 지킨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한국인들은 어떤 사회 조직에 속하든지 그것에 가족 개념을 적용시켜 가족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려는 의식으로서 여기에서의 태도는 완연히 다른 것이다. 내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무조건 옹호하는 한국인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지연이나 학연 개념은 모두 이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가르는 데에서 시작한다. 사회에서도 어떤 조직에 속하든지 그것에 가족 개념을 적용시켜 가족의 연장으로 파악한다. 홉스테드의 이론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국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개인주의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집단주의 의식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집단성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³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내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인 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존속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과오는 정으로 감싸준다. 즉 우리 집단에 속한 것 하나만으로 좋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싶은 것이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정의 요소가 배제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타산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우리’ 안에 끼는 것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우리’ 의식이 2 인칭 대명사를 대항하는 3 인칭 사회통칭어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이해 상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특정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으레 ‘언니’ ‘오빠’ ‘어머님’ ‘아버님’ 등의 친족 호칭을 관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는 가족에서처럼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한국 사회에 널리 잠재된 문화코드에서 비롯된 언어 습관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학교문법식의 설명만을 믿고 외국인이 따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쉬운 것이 한국어 속의 2 인칭 대명사라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즉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2 인칭 대명사가 왜 실제적 사례에서 전혀 다른

³⁴ 최준식(1997), 앞의 책, 127 면.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소박한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어 언어 현실은 존대해야 할 대상에게 쓸 적합한 한국어 2 인칭 대명사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 속에서 온전한 2 인칭 대명사는 존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너’뿐이지만, 그래도 성인사회에서는 ‘너’라는 호칭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존대할 대상에게 쓸 수 있는, 2 인칭 대명사를 대행하여야 하는 명사를 필요로 하는 데 그것이 3 인칭 명사 호칭이다. 여기에서의 3 인칭 명사 호칭은 한국인조차 어렵게 느껴질 만큼 그 표현의 다양함에 있어서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인칭 대명사의 언어 현실과 3 인칭 명사 호칭에 대한 언어 현상을 사회언어적 규범과 문화적 사고 범주를 나타내는 사회적 문법과 문화적 문법 개념으로 정의하여 하나의 설명체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사회적 문법 접근에서는 호칭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일단 힘(서열)과 유대(친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압축해 보았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방과의 존대 관계가 결정되면서, 2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대행할 적절한 3 인칭 명사 호칭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 속의 ‘내’가 선택하는 존칭 호칭은 자연히 극대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다양한 호칭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문화적 문법을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이라고 개념화한다면, 한국어 속에 나타나는 존대할 대상에게 쓸 수 있는 2 인칭 대명사가 사실상 없으며, 온전한 2 인칭 대명사로서 오직 ‘너’만이 사용상 비교적 자유롭다는 언어 현실은 한국의 가족주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파생된 ‘어른’ 범주적 사고의 변형이 구체적으로 2 인칭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3 인칭 명사 존칭 호칭의 극대화 경향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의식이 2 인칭 대명사를 대행하는 3 인칭 사회통칭어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이해상관 등이 관련되어 친화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으레 ‘언니’ ‘오빠’ ‘어머님’ ‘아버님’ 등의 친족 호칭을 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과 나를 ‘우리’ 라는 가족적 범주에 포함시켜 이성보다는 정에 호소함으로써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한국적 문화코드에서 비롯된 언어 습관이라 할 수 있다.

본고를 쓰면서 느낀 것은 언어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인데 21 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아직도 2 인칭 대명사는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언어 현실이다. 수직사회에서 한국인은 점점 수평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언어가 경직될 때 사고도 경직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장유유서로 나이든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의 위계적 질서를 존중하는 미풍양속은 지켜야 하지만, 이것이 곧 인격적인 서열을 매김하고 상과하의 수직적이고,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인간관계로 형성되는 사회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한국어의 경어 문화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사고의 자유함에 적대적인 뿌리로 옹크리고 있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구에게나 부담없이 부를 수 있는 2 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은 절실한데 가능한 일일까? 다른 어떤 언어적 장치보다도 의사소통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2 인칭 대명사 사용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으면 적절한 2 인칭 대명사 혹은 대행 3 인칭 명사를 찾지 못해 말하기를 피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로 애매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어려움을 조금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2 인칭 대명사 사용에서 그리고 대행으로 발달된 다양한 3 인칭 명사 호칭어에서 반영되는 경직된 언어와 사고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만큼 쉽게 바뀌어 지지 않을 것이다. 1970 년대에 들어오면서 ‘언어 능력’의 문제가 더 이상 ‘문법적 능력’에 집중되지 않고 ‘의사 소통 능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2 인칭 대명사 언어 문화에 대한 하나의 설명 체계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신표 편(1985), 『한국문화연구』, 현암사.
- 김선희(2001), 『우리 사회 속의 우리말』,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1),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박정운(2005), 「제 3 장 한국어 호칭의 세계」 『한국 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亦樂.
- 이익섭(1994), 「한국어의 호칭과 경어법」, 『사회언어학』, 민음사.
- 왕한석 외(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亦樂.
-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생각의 나무.
- 최봉영(199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I)』, 느티나무.
- 최재석(1965),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民朝社.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홉스테드(차재호·나은영 공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 Brown, R. & Gilman, A.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ebeok, T. (ed.) 『Style in Language』, Boston: MIT Press.
- Hofstede, Geert(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Nakane, Chie(1970), 『Japanese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Osgood, C.(1951),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Romm, NRA & Hsu, CY(2002), 「Reconsidering the exploration of power distance: an active case study approach」. 『Omega』, 30: 403-414.
- Sohn, Ho-min(1983), 「Power and solidarity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3: 97-122.